

함께 꾸는 꿈

(격월간 발행) 제149호 2024 5, 6월호



대구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 및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http://www.civilpower.org>



앞산에서 본 팔공산

04 권두언	불통의 나라, 불통의 도시 정혜숙
05 기획1	홍준표 2년, 위험한 질주, 더 늦기 전에 멈추어야 한다 강금수
08 기획2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청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강금수
10 노동현장은 지금	노동을 향한 불편한 시선들 최윤영
12 Art & Culture	이런저런 생각들이 문득 김병호
14 젠더비평	국가에 의한 젠더 폭력 과거청산과 치유를 위하여 차우미
16 특별기고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집단학살을 멈추어라! 성상희
18 청년비평	군대 그리고 성찰 조영태
20 칼럼	누가 86운동권을 비난할 수 있나 김윤상
23 이달의 회원	민혜진 회원을 만나다 김선희
26 해설이 있는 답사이야기	현곡에서 참경주를 만나다 도경화
30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32 재정보고	
33 회비납부명단	



표지이야기

〈침례(浸禮)〉 클레멘타인 헌터(CLEMENTINE HUNTER)작 캔버스에 유채(Oil on Canvas)
작가 : 클레멘타인 헌터(CLEMENTINE HUNTER, 1886-1988)

클레멘타인 헌터는 1886년 루이지애나 주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다. 놀랍게도 그녀는 정식으로 미술을 배운 적이 없었고 온전히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50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누군가가 남긴 미술 재료를 주워 낚은 창문 블라인드에 첫 작품을 그렸다고 한다. 고된 노동을 마친 후 저녁 시간에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농장 풍경, 노동하는 동료, 종교 행사 및 일상에 대한 기억으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남겼다. 1971년, 그녀의 작품이 지역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루이지애나 주립대학(LSU)은 80대가 된 그녀의 작품을 초대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백악관 초대전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 미술관과 박물관에 초대되거나 그녀의 작품이 소장되었다.

더 유명해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그녀는 생전 차별받던 유색인종 여인으로서 가족들과 동료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잘 보이기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삶이 그녀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기쁨,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저 담담히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기록했을 뿐이라고 한다.〈화가 김병호〉

불통의 나라, 불통의 도시

- 대프리카의 더위는 비할 수도 없는 -

정혜숙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태원 참사에는 좌파의 음모를 들이대고, 채 상병의 죽음에는 군대에서의 명령 불복종이 문제라고 내세운다. 언론 정상화를 주장하며 언론과 방송 탄압을 일삼고, 친원전 정책이야말로 자연친화적이라고 주장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는 대지 못하면서도 지역별 의료 불평등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자책하며 삶을 포기할 때, 긴급지원대책은 도외시한채 “경험이 없다 보니 덜덜덜덜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비난하기까지 한다.

그렇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국가는 없다. 책임지는 이도 없고, 책임지려는 이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말한다. 한자어 뜻 그대로 각각 스스로 살기를 꾀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으며, 사적 제재와 폭로가 더 응원받는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그마한 파우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되지 않았는가.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조삼모사식 정책 발표로 인해 누가 또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 걱정해야만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일방적인 독주와 불통을 심판했지만, 여전히 소통의 변화는 없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럽기 그지없다.

불통과 불안은 지역에서도 다르지 않다.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적 대응 요구가 높지만, 대구에서는 국내 1호 소형모듈 원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N포 세대(연애,

결혼, 취업, 희망, 출산, 내집 마련 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요즘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의 현실은 무시한 채 수달이 사는 신천에 110억 원을 들여 프로포즈 수상공원을 설치한다고도 한다.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만들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자평한다. 새벽중이 울리고 새 아침이 밝아오면 허리띠를 졸라매자던 구시대의 새마을 정신을 글로벌한 사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거의 박정희를 현재로 불러내기도 한다. 시정에 문제 제기하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취재거부와 고발을 남발하고, 합법적 집회임에도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회를 방해한다. 소송에 패소하고도 법원의 법리 오해라면서 바로잡겠다고 한다. 어디에서나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불통과 독단이 일상화된, 그야말로 ‘비정상적 정상화’ 사회에 살고 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비가 오면 대프리카의 더위도 한풀 꺾일까. 장마가 끝나면 다시 더워지겠지만,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무더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원한 가을바람에 자리를 내 줄 것이다. 그렇게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불통의 시간은 촛불과 투쟁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며, 결국에는 변화의 힘을 만들어 낼 것이다.

회원 여러분, 시원한 저녁 다들 폭 주무시고, 내일은 다시 주먹을 꼭 쥐어 보기로 해요! ^^ 

홍준표 2년, 위험한 질주, 더 늦기 전에 멈추어야 한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홍준표 시장이 임기 2년을 맞아 “대구가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시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가지 혁신으로 대구를 변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더해 대구혁신은 100+1의 틀을 완성했다”고 말하며 시정 2년 성과집 ‘대구혁신 100+1’을 발표했다. 그러나 너무나 주관적 희망과 편견, 자화자찬과 성과 짜깁기가 보기에 민망하다. 민간의 작은 단체도 성과는 성과대로 제시하고 실패와 지체에 대한 반성, 문제점과 과제를 함께 평가하건만 대구시는 도무지 아니다. 문제는 전혀 없고 잘한 것밖에 없다. 과연 홍 시장 2년이 그랬던가. 아니면 ‘시정 문제집’을 따로 내기라도 할 요량인가.

홍준표 2년, ‘시정 성과집 100+1’ 주관적 희망과 성과 짜깁기 민망

시정 성과집 ‘대구혁신 100+1’은 홍 시장과 측근들이 볼 때는 성과이겠지만, 공공의 눈으로 보면 혁신이 아니라 퇴행에 불과한 것들로 준비하다. 반지성의 낡은 시대정신, 반공공성의 자본 논리로만 세상을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첫째 성과로 내세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애초부터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었다. 균형은 이전하고 민항은 존치되어 제대로 된 관문 공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의 뜻이었다. 그러나 균형 이전의 염원은 수포가 되었고, 군위군이 편입되어 어쨌든 대구 내에 있지만 접근성은 더욱 떨어졌다. 엄청난 돈이 드는 데 반해 관문 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할지 미지수다. 전임 시장의 정책을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 홍 시장의 과단성으로 이것부터 시민의 뜻대로 되돌렸다면 오히려 성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 시장은 정작 계승해야 할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독단으로 무산시키고, 시민 공론화로 합의한 신청사 이전도 판지를 걸어 수년간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맑은 물 하이웨이와 금호강 르네상스, 군위군 소형 원자로 도입도 문제적 정책일 뿐 성과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먹는 물 대책은 낙동강 오염수 유입을 차단하고 보 개방 등을 통해 원수를 맑게 하는 것이 근본인데 이를 저버렸고, 그나마 합의한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합의도 무산시키고 더 문제가 많은 안동댐 이전을 대안이라고 강변한다. 금호강 일대를 마구잡이로 개발하여 강을 오염시키는 것도 철 지난 산업 시대의 논리에 물든 이들에게는 성과로 보일지 몰라도 강의 보존과 생물 다양성을 중시하는 환경 위기 시대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더욱 뜬금없는 것은 상용화 사례도 없고,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은 소형 원자로를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도 없이 군위군에 들이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철 지난 성장 일변도, 반공공성 자본 논리만 횡행

홍준표 발 전국 최초 정책들도 퇴행을 선도하는 것일 뿐 혁신을 선도하는 일이 아니다. 홍 시장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였으며, 지역 화폐 실물 카드 사용도 금지시켰다. 전국 최초로 수십 개의 공공기관과 수십 개의 위원회, 여러 개의 기금을 6개월 만에 통폐합시켰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주말 휴식권을 박탈당하고, 노인 복지는 축소되었으며,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은 지역 화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일부 공공기관과 위원회의 통폐합 필요성은 있었지만 막무가내 통폐합으로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혼선, 공공일자리 불안정이 높아졌으며, 그나마 시민과 전문가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마저 봉쇄당했다. 그러나 그 결과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알 수 없다. 무엇이 성과란 말인가.

홍 시장은 지방채 없는 예산 편성,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혁신하고, 원스톱 기업 지원으로 수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찬한다. 그러나 일부 비효율이 개선되고 빛은 좀 갠졌을지 몰라도 시민의 복지와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다. 청년, 여성, 소상공인 및 공공의료와 사회적 경제 등의 예산이 축소되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와도 돈 한 푼 쓰지 않았고, 소매 매출이 급락하고 소상공인 폐업이 속출해도 아무런 지원 대책을 쓰지 않았다. 서대구산단 태양광 사업에 3조 원을 유치한 것처럼 선전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점은 말하지 않는다. 재정을 절감한다면서 경제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대형 토목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대구 마라톤 대회를 보스턴 대회보다 크게 만들겠다고 상금을 높이고,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는 등 자기 눈에 들어온 전시행정에는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민생 망치고 시민참여 봉쇄한 전국 최초 정책들

홍 시장이 100에 1을 더해 성과로 내세우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더욱 문제다. 본인이 반대하여 중지된 논의를 갑자기 들고나온 것도 느닷없지만 올해 안에 의회 동의, 특별법 통과를 완료하고, 2026년에는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은 과단성이 아니라 권력의 남용이자 시·도민에 대한 폭력이다. 국회의 특별법이 홍 시장 마음대로 될 리도 없지만 작은 행정구역 하나 통합하는 데도 오래 논의하고, 깊이 연구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합의와 공론화도 거치고, 주민투표도 필요하다. 광역 시도 간의 통합은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홍 시장은 초록동색의 거수기 의회가 뒤를 받쳐 주니 주민의 의사 따위는 무시한다. 제왕의 권력에 심취되어 앞뒤 분간을 못한다.

진정으로 암울한 것은 ‘홍준표 무요류설’이 대구 시정을 지배하고, 시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어쩌다 공무원’이 판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언론은 침묵하는 가운데 더욱 ‘고담대구’가 되고 있다. 홍 시장이 내뱉은 말은 무조건 집행하고, 의회는 이를 정당화하기 바쁘다. 어구들은 용비어천가를 부르기 바쁘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공무원은 입을 닫고, 처세에 빠른 이들은 흥분 잘하고 앞뒤 없는 홍 시장을

앞아가고 있다. 시장과 어공의 ‘반지성 카르텔’이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적대하며 고소 고발전이 난무한다. 시의회가 공론장이라고 강변하며 시민의 복종, 언론의 받아쓰기를 강요한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제왕으로 군림한다. 민선 8대, 30년간 이런 시장은 없었다.

홍준표 무오류설이 지배하는 대구 시정은 ‘죽은 시인의 사회’

홍준표라는 떠돌이 정치인은 떠나면 그만이고, 추종 세력은 시장의 지시였고, 절차를 거쳤으니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난장판을 수습하고, 퇴행을 바로잡아 대구를 정상화해야 할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홍준표 시장, 더 이상의 퇴행과 폭주는 안 된다. 시원함이 사라진 콜라는 갈증만 가중시킨다. 자신을 돌아보고 시민을 바라봐야 한다. 더 이상 폭주하면 민심의 바다가 요동칠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입을 열어야 하고, 의회가 견제해야 한다. 언론이 비판해야 하고,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 시민단체 합동 정책토론회

대구경북행정통합,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2024년 7월 17일(수) 19:00
- 장소: 대구YMCA청소년회관 1층 카페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 541)

사 회	강금수 _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주제발표	김재훈 _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전. 대구사회연구소장
지정토론	이창용 _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 조광현 _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서병철 _ 대구YMCA 사무총장

주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YMCA/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청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5월 2일 대구시의회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조례(박정희기념조례)'를 의결하였다. 홍준표 시장이 박정희 동상 건립을 언급한 지 63일 만이었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자임하는 홍 시장이야 그렇다 치고, 논란 중인 사안을 집행부가 밀어붙이면 제동을 걸고,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묻고 정당성을 검증해야 할 의회가 홍 시장의 독주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이러니 거수기 의회라 비판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구시와 시의회의 반민주, 반교육적 퇴행을 잠자코 수용할 수는 없다. 이에 '박정희우상 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범시민운동본부)'는 민주시민의 책무이자 제도적으로 주어진 시민의 권리인 주민발안권으로 대응하고자 대구시의회에 박정희기념조례 폐지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범시민운동본부가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이유는 첫째, 박정희는 친일, 독재, 인권 말살, 노동 착취, 부정 축재 등을 자행한 역사의 죄인으로서 공공기관이 기념해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며, 둘째, 역사의 죄인을 시민의 세금으로,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과 학문과 지성의 장소인 대구 대표도서관 등에 동상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셋째, 박정희에게 산업화의 공로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확정된 평가가 아니며, 설령 공로가 있다고 해도 수많은 과오를 종합할 때 조례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넷째, 공공기관이 이런 인물의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의, 불법, 부패를 자행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교육적, 반헌법적 조례이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박정희기념조례에 맞서 조례 폐지 주민발안운동으로 대응

'대구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주민발안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즉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청구인은 증명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유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약 14,000명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의회가 이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미 박정희 동상 반대 2,000인 시민선언 언론광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대구시의회로부터 조례폐지청구 대표자 증명을 수령하는 대로 7월부터 거리 서명과 전자 서명을 병행하여 조례폐지청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박정희 바로알기 전시회 등 캠페인과 동상 건립 반대 시민대회 등 직접 행동 ▲주민 감사청구와 동상 건립 취소소송 등 법적, 행정적 저항도 이어갈 것이다.

이 외에도 경북 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칭하려는 반역사적 흐름에 맞서 ▲경북 지역 및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박정희 바로알기 캠페인,
동상 건립 반대 전국연대도 추진**

우리는 대구 시민정신을 오염시키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대한 퇴행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역사의 무덤에 봉인되어야 할 망령이 우리 시대에 부활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녀야 할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더럽히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 대구 시민, 전국의 국민과 함께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26년을 달려왔건만 홍준표 시장과 국민의힘 정치세력은 참여민주주의는 고사하고 합법적 폭력으로 대구의 시대정신을 70년대로 되돌리는 거대한 퇴행을 일삼고 있다. '동상이 뭐 별거라고,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대 정신의 퇴행은 광범위한 정책 퇴행에 이념적 동의를 부여하여 유사 개발독재의 횡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박정희 동상을 세워 놓고 참여민주주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박정희 동상 허용하면 참여민주주의는 요원

지금까지 대구참여연대와 우리 회원들은 박정희 동상을 반대하는 범시민운동본부의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러나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우리가, 시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물리적 힘으로 막지 않는 이상 홍준표는 합법적 권한과 절차로 동상을 세우고야 말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반대 운동을 멈출 수 없다. 홍준표가 박정희 동상을 세우면, 우리는 그것을 기념물이 아니라 역사적 조롱거리로 만들고, 언젠가 그 동상과 함께 홍준표의 정치도 무너지는 날이 오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노동을 향한 불편한 시선들



최윤영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실장

2010년 11월, 경찰은 부산 여대생 납치, 강도 및 성폭행 용의자 수배 전단에 용의자 인상착의를 ‘노동자 풍의 마른 체형’이라고 설명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노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노동자 풍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지도 불분명하거나, 그러한 표현이 노동자를 하찮은 존재, 남루한 이미지, 사회적 낙오자, 잠재적 범죄자 등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규정, 폄하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경찰청에 공식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회신 공문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노동자 풍”이라고 수배 전단에 표현한 것은 단순히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행정적 실수였을까? 그 속에는 노동자라고 하는 집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확히 노동자 계급을 향하고 있는 표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인식에서도 폄하되고 있다는 단적인 반증이기도 했다.

‘노동자 풍’,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공권력

노예 사회건, 봉건 사회건, 자본주의 사회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소수 세력들은 자신들의 법과 제도와 공권력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가진 자들의 이데올로기로 그 사회를 무장시켰다. 그리고 피지배 계급에게는 순종과 복종의 미덕(?)을 가르쳤고, 피지배 계급이 가지는 문화는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지배 계급에 대한 저항은 최고의 부도덕으로 간주되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을 향한 이데올로기적 공격과 폄하는, 일반 대중의 노동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본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인하여 자본과 노동 사이에 끊임없는 마찰과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어떤 개개인의 도덕과 품성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체제가 가져오는 필연적 현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일각에서는 노동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이 항상 존재한다. “산업평화를 저해한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너무 과격하다”는 등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여기에 속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연이어 터져 나온 7, 8,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정권하에서 산업 역군이라는 허울에 갇은 고초를 감내해 온 노동자들이 화산의 용암처럼 자신들의 요구를 분출하며 이 사회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 투쟁을 통해 전노협을 거쳐 오늘의 민주노총에 이르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이 땅의 노동자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첫째는 투쟁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소한 경제투쟁에도 공권력이 모두 개입함으로써 정부가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는 정치적 각성이 빨랐다는 것이며, 셋째는 사회적 완충지대가 적어 매우 전투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 노동자들의 타고난 품성이 전투적이어서가 아니라 자본과 정부가 자초한 것이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노동의 저항에 대해 대중들에게 과격의 이미지를 덧씌워 불편한 시선들을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결코 노동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얼마 전, 테슬라 자동차의 최고 경영주 일론 머스크가 66조 원의 성과급을 주주총회에서 추인받고 덩실 덩실 춤을 추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테슬라 자동차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의 결실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자본주의다.

노동운동의 이기주의, 폭력성 유포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공세

자본은 늘 노동시장을 분할하고, 분리하려고 애쓴다. 그 극단적 사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이다. 그 분할을 통해 자본은 노동시장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노노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자신들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동 진영에 책임을 전가하며 해고의 칼날을 거침없이 휘두른다. 그리고 자본의 통제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노동 이기주의로 몰아가며 일반 대중의 불편한 시선을 만들어낸다. 노동에 대한 현장의 통제, 사회적으로는 계급 이기주의를 양산하는 자본과 정부의 공격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그중 한 명이 “공무원 노조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 행사할 때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면서?”라며 자못 시비조로 말을 걸어왔다. 그러자 몇 명이 “공무원이 노동조합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네”라고 동조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인데도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을 해왔다. 나는 분명히 대답했다. “공무원 노조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속한 기관의 공식 행사에서는 국민의례를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 행사는 기관과는 별도로 우리의 독자적 행사이므로 우리는 민중의례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되물었다.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는 교회 예배 보기 전에 국민의례 하나? 절에서 법회 전에 국민의례 하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노동을 향한 불편한 시선들은 자본의 공세와 맞닿아 있다. 이제 그러한 불필요한 시선들은 거두어둘 일 때도 되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문득



김병호 화가 cosmo4189@hanmail.net

1.

〈어떤 태극기부대 아주머니〉

지난 2020년, 전염병이 처음으로 내려앉은 대구. 그해 봄, 바보주막에 모여 김밥을 돌돌 말던 시절이 있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이 끊긴 탓에 모인 필요한 이들을 위한 김밥 나눔이었는데, 대구의 아줌마 파워를 여실히 느끼게 했다. 모두가 헌신했고, 하하호호 즐거운 노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지만, 그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었다. 조용히 와서 김밥 부대로 참여해 주신 한 태극기부대 여사님. 한때 광화문까지 상경해 태극기를 흔들었다던 열혈 박사모 아주머니였다.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김밥 나눔이 더 소중한 이 여사님의 변화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조롱과 모욕이 아니다. 그해 처음으로 전태일 기념관 건립 바자회를 위해 엄청난 물품을 들고 오신 이 아주머니의 정성을 통해, 우리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용히 함께 했던 바보주막 사람들의 노고를 격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감화의 근본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열사 전태일의 힘이 아니었겠는가.



2020년 4월 바보주막서, 처음 열 명 남짓 시작해 서른 명 가까운 아줌마들이 함께 해 주셨다.

2.

더러운 이슈를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인간들이 있다. 일종의 저급한 관중이다. 그런데 그 관중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참혹한 결과로 다가오게 된다. 멀쩡한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이간질하며, 서로 싸움을 붙여 하등 쓸모없는 것에 사람들의 돈을 뺏는다. 한 대도시의 각계각층 전문가 집단과 시민 다수가 수년간 논의해 만든 도시 상징을 혼자만의 생각으로 누구에게도 논의하거나 공론화하지 않고 바꾸려 한다거나, 망령에 사로잡혀 이 땅의 이념 전쟁을 만든 쿠데타 군부 독재자의 동상을 제 마음대로 이 도시 주요 관문에 세우겠다고 한다.

다수의 의견 수렴조차 이렇게 짓밟히는데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겠는가? 짧은 날 돼지발정제를 운운했던, 시절이 좋아 그냥 넘어갔던 일이지만 요즘 세상이라면 몰매감에 진배없다. 그리고 보니 문득 버닝썬이 떠오르고, 더러운 짓으로 수감되었던 어떤 가수도 떠오른다. 그새 악취가 진동해 더 거론하기도 싫다!

3.

우리가 좀 못 됐게 해야 하는 이유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고아에게,
누명을 쓴 이에게
그들에게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놈들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랴, 짐승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가정사에 아픔이 있고, 먹고 사는 일에도 고민이 많아 글도 잘 쓰이지 않는다. 잡념만 가득해 뜬눈으로 밤을 새기 일쑤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은 많은데 건질 게 없다. 이 지면을 빌려 좋은 문화와 아름다운 예술을 함께 공유하고자 했던 처음의 뜻이 다 사라지는 걸 보니, 인제 그만 펜을 놓을 때가 된 것 같다. 누구의 시구처럼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지, 하며 헤어질 결심을 해본다. 그러나 중구난방이었던 이것들을 정리하여 올 한 해는 잘 갈무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략〉 김병호 작 종이 위에 먹(2020)



〈연대기〉 부분, 김병호 작(2016)

국가에 의한 젠더 폭력 과거청산과 치유를 위하여



차우미 아인심리상담연구소 대표

지난해 5월, 대구시가 처음으로 주최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10월 항쟁 유가족을 위한 트라우마 집단치유 작업이 있었다. 단 하루 진행된 트라우마 치유작업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유족들은 오랜 시간의 강요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학살 피해 유가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한 70대 남성 유족분은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애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낼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하루의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유가족들은 오랫동안 국가와 사회가 억압한 금기를 깨고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상상하고 어머니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오랫동안 깊이깊이 묻어 두었던 상처를 조금씩 만날 수 있었다.

5월의 트라우마 치유에 힘입어 필자는 10월에 6회기 동안의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회기 동안 어린 시절의 자신들을 만나고 희생당하신 아버지의 존재를 가슴으로 만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젊은 시절 억울하게 남편을 잃고 일생을 차별 속에 국가와 친인척, 지역사회로부터 끊임없는 2차 가해를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어머니를 애도하는 시간도 뜻깊었던 것 같다. 마지막 회기에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를 소지하는 의식 후 한결 밝아진 참여 유가족의 모습에 몽클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유가족들의 상처와 삶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인 분단의 비극과 우리 사회의 폭력성의 일단을 드러낸다. 빨갱이라는 프레임 속에 학살된 피해자들과 차별과 배제 속에 침묵을 강요당한 유가족들의 삶, 특히 고난 속에서 홀로 자녀들을 키워 내야 했던 아내이자 어머니들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이다.

제주에서는 토벌대들이 남편이 있는 곳을 대라고 만삭이 다 된 임산부의 배에 널빤지를 올리고 양쪽 끝에 올라타 널을 뛰는가 하면 끌려간 곳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토벌대에 불려가 성기를 인두로 지지는 고문을 당하고 엄마가 고문을 당하는 동안 남겨진 갓난아기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굶어 죽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 5살짜리 유아와 아들도 끌려가 협박과 고문을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는 가족을 감시하던 경찰들에 의해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한다. 어떤 사례는 감시하던 경찰이 남편을 끌고 간

사이 교사였던 아내를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결국 아내가 죽음에 이르는 일도 있었다. 아내뿐만 아니라 군에 간 자녀를 성고문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김상숙, 2010, 2014, 2020, 2024).

남편과 아버지가 무참히 학살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아내와 어머니, 딸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수난을 받았던 비극의 역사는 폭력 없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생활지원과 트라우마 치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피해를 증언할 수 있기 위해 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와 시민사회, 특히 여성단체와 과거사 인권단체가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상숙, 2024).

지난 7월 1일 시범사업을 거친 광주와 제주에 국립트라우마센터가 공식 개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국립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보잘것없다는 평이 우세하다. 실제 배정된 인원은 필요 인원의 5분의 1 수준인 13명에 불과해 시범단계였던 광주트라우마센터 당시와 차이가 없다(프레시안, 2024. 06. 30).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의 퇴행적 망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려는 노력,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고령의 유족들이 더 고령이 되기 전에 그들이 겪은 가부장제와 분단으로 인한 국가의 폭력과 고통을 사회에 알리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 세대가 보다 덜 폭력적인 세상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실천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집단학살을 멈추어라!



성상희 생명평화아시아 상임이사

10월 초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략이 이제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8개월 동안 가자 지구에서 3만 7천여 명이 살해당했고, 8만 6천여 명이 부상당했다. 이들의 대부분이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은 난민 캠프를 포함하여 민간인 거주 지역에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다. 5월 26일 라파 난민촌 공습, 6월 8일 누세이라트 난민촌 공격에 이어, 이스라엘군은 6월 21일 가자 지구의 국제적십자사 사무실을 포격하여 스물다섯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했다. 22일에는 가자 지구 북부의 난민 캠프 두 곳을 공습하여 약 40명을 살해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은 고삐가 풀린 듯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27일 밤부터 가자 지구 중부에 다시금 대대적인 군사력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가자 지구 철군을 요구하고 있는 헤즈볼라의 공격을 핑계로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자국을 공격하여 많은 인명을 살해하고 자국민을 인질로 잡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 및 인질 석방을 위한 무력 공격으로서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는 상대방의 무력 공격이 현실에 존재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하마스의 공격은 이미 종료되고 자국 영토로 철수를 한 상태였으므로 이스라엘의 공격은 단순히 보복을 위한 것이지 자위권 행사가 될 수 없다. 명백한 침략 전쟁이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난민촌을 비롯하여 민간인 지역과 건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인 살상이 제네바 협약 등 국제 인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범죄 행위라는 것은 명확하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4년 1월 26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다수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어 제네바 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스라엘은 자국 군대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하였다. 5월 25일에는 이스라엘에게 라파 지역 공격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채택하였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의 총리와 고위 관료, 하마스 지도부 주요 인사들을 민간인 살해 등 전쟁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는 세계의 국제 사법기관이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가자 지구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으로 공격과 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난민 캠프를 비롯한 가자 지구 대부분 지역은 기초적 인프라의 파괴와 이스라엘 점령 당국의 구호물품 반입 차단으로 인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체포영장에서 이스라엘이 민간인의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공격을 중단하고 가자 지구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미국의 학살 행위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3만 발 이상의 미사일을 비롯한 대규모 군사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와 민간인 학살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과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행동은 반인도적이며 반문명적인 야만 행위이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수립된 미국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알고 있는 미국 시민들은 이러한 야만 행위에 대하여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점령자들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이후’를 준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주인은 이스라엘도 미국도 아닌 팔레스타인인들이며, 가자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있다. 누가 가자 지구를 관리할지를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태도는 노골적인 식민주의의 표현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현재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을 향한 최악의 공격을 저지른 대량 학살 테러 조직 하마스에 맞서 정당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은 이스라엘이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이후 팔레스타인인을 제물로 하여 최악의 제노사이드, 제2의 홀로코스트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네타냐후는 제2의 히틀러이며 이스라엘 정부는 제2의 나치이다.

20세기 인류 최대의 비극은 아우슈비츠이며 인류 최고의 수치는 나치였다. 21세기 인류 최대의 비극은 팔레스타인이며 최고의 수치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 점령, 총알과 폭탄,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학살을 중단하라!
미국은 무기 수출과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
굶주림도 학살이다, 가자 봉쇄를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 지구에서 철군하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즉각 휴전 협정에 조인하라!
팔레스타인의 주인은 팔레스타인 민중이다!

군대 그리고 성찰



조영태 대구참여연대 상근활동가

10년 전 전역을 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다. 스물셋이었는데, 어느덧 삼십 대다. 그 사이 군대도 많이 변했다. 내가 병장이었을 때 월급은 149,000원이었다. 파견 근무와 사격 3발 명중이라는 처참한 기록으로 진급 누락을 두 번이나 당해서 이마저도 늦게 받았다. 올해 기준으로 병장 월급은 1,250,000원이다. 열심히 적금 들면 1,500만 원을 가지고 사회로 나올 수 있다. 나 때는 못 썼던 휴대폰도 쓸 수 있다. 군 생활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다. 10년 전 나의 군 생활보다 지금 군대는 확실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요즘 군대 좋아졌다’라는 말. 내가 군대 갈 때도 들은 말이다. ‘요즘 군대가 군대냐’라는 말도 들었다. 확실히 나를 기준으로 예전과 비교하면 좋아진 것도 맞다. 2004년 병장 월급은 57,500원 정도였고, 병영 부조리도 심각했으니 말이다. 다행히도 내가 다녀온 부대는 병영 부조리가 없었다. 흔히 ‘네 위로 내 아래로’ 집합도 해본 적 없다. 병과도 그리 힘든 보직이 아니어서 좀 편하게 생활했다. 부대는 옛날 그대로라 50년 대처럼 3~40명이 우르르 생활하는 컨테이너 생활관이었지만 말이다. 그래서 간혹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더 고생한 군 생활을 했는지 이야기할 때는 입을 다문다. 하지만 ‘요즘 군대가 군대냐’라는 주제가 나오면 신나서 참여한다. 그게 군대냐며 말이다.

‘그게 군대냐’라는 말. 사실 이 말로 인해 군대를 더 좋아지게 만들기 어려운 것 같다.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전쟁(침략이든 방어든)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력이라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군 생활이 좋아지는 게 전투력 손실이라는 논리로 귀결되곤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 상관관계나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따지고 연구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편협하게 생각하면 그 전투력 손실이라는 기준은 ‘나의 군 생활’에 맞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내가 생활한 기준으로 군 생활이 편해지면 전투력이 손실된다’라는 논리로 따지면 지금 나의 군 생활은 이전 세대보다 편하고 전투력이 손실됐으니 50~60년대 군 생활로 바꾸자고 하면 과연 누가 좋다고 찬성할까. 아, 있겠다. 전역했거나, 자식을 군대 보내거나 보낼 예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군대 전투력을 제일 걱정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때는 (거의 장난이라 변명을 하지만) 말년 병장이니 말이다. 혹은 이렇게 해야 한다, 유격은 이렇게 해야 한다, 군인은 이렇게 굴러야 한다는 말을 나도 했으니 말이다.

‘군강스’나 ‘요즘 군대가 군대냐’라는 말. 전역한 사람들은 ‘네가 다녀온 곳이 군대냐’라는 말을 한다. 근데 이 말을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쓰면 화를 많이 낸다. 이게 무슨 감정일까. 흑인들의 N-Word 같

은 건가 생각했다. 요즘은 덜하지만 군대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옛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고생한 사람들끼리는 쓸 수 있지만,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쓰면 비하 표현이 되고, 그럼에도 상황 개선을 위한 논의는 반대하는 상황이 썩 유쾌하지 않다. 군 생활을 비교적 편하게 다녀온 나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누군가 ‘군캉스 다녀왔네’라고 이야기하면 썩 좋은 기분은 아니다. 그럼에도 나는 ‘군캉스’나 ‘군 생활 편하게 했네’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쉽게 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으니 그런 자격이 생긴 걸까. 그럼에도 지금 군인들이 전역할 때 1,500만 원을 모으고 나온다는 이야기도 썩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부끄럽게도 박탈감 같은 게 들어서 말이다.

최근 군대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관계되어 있거나 성별과 연관되면 한참 동안 이슈가 된다. 10년 전 군 생활 할 때, 파견 근무지 벽에는 군대 내 한 주 또는 한 달 간 사건사고를 적은 종이 붙어있었다. 사고로 죽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다치는 사람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럼에도 큰 이슈는 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다. 그게 군대였으니 말이다.

육군 창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군대 문제와 군 생활을 이야기할 때 본인이 이등병·일병이었을 때 괴롭힘당한 이야기는 많지만, 본인이 상·병장이었을 때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게 많은 부조리가 이어지고 괴롭힘의 사례가 있는데 왜 그럴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음에도 왜 여전히 다치고 죽을까. 특정 세력과 특정 성별 문제일까. 어쩌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 욕했지만, 그 뒤로 외면했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손가락을 들어 욕할 수 있다. 잘못된 이가 명백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 손가락을 드는 ‘나’는 이 상황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누가 86운동권을 비난할 수 있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김윤상 칼럼니스트, 대구참여연대 자문위원

86 운동권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린다

6월이 되면 1987년 6월 항쟁이 떠오른다. 1980년대의 대학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열기로 뜨거웠다. 경북대의 소장 교수였던 필자는, 위협을 무릅쓰고 민주화에 헌신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걱정 반, 응원 반의 심경이었다. 이 학생들은 후일 386(30대 연령,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운동권으로 불리게 되었다.



대구중앙로(중앙파출소 앞) (6월 16일)

대구중앙로(중앙파출소앞)을 점거한 시위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 중 최루탄 진앞에 흩어지고 있다

사진제공 매일신문사

1987년 6월 옛 대구 중앙파출소 앞 시위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 중 최루탄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 '6.10민주항쟁 34돌 사진전(매일신문사)(2021.6.10.2.28기념공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런데 이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더러 들린다. 한 예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 수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4.10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둔 1월 31일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늘 변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과거 운동권이었다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면서, 정치 퇴행을 이끄는 세력이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 연설에서도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

1월 31일 토론회의 발제자 중에는 함운경 ‘민주화 운동 동지회장’이 있었다. 함 회장은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이었고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386 운동권이었다. 그는 몇 차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었고 열린우리당 후보로 군산시장 선거에 나서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번 4.10 총선에서는 정치 진영을 바꾸어 국민의힘의 전략공천으로 마포구 을에 출마했었다. 함 회장은 이 토론회에서, “운동권 세력은 국가에 애착이 없으며 민족을 우선시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인데 “이를 민주화 투쟁으로 포장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운동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이들의 비난이 맞든 안 맞든, 우리 사회에서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많다. 윤석열, 한동훈을 비롯한 법조인 출신도 예외가 아니다. 한 위원장의 표현을 패러디하자면 ‘어찌다 한번 취득한 자격증을 내밀고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드는 법조인 특권을 청산해야 한다.’

또 법조인의 상당수는 젊은 시절, 민주주의가 훼손되거나 말거나, 출세를 위해 사법시험 공부에 파묻혀 살았다. 서울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이 2학년 때인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다. 1982년에는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후 9수 끝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 기간에 운동권 학생들은 각종 불이익을 당했고 군에 강제로 입영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다른 서울법대 출신 법조인의 예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을 보자. 한 전 위원장은 서초구 8학군 출신이며 서울법대 92학번으로 4학년 때인 9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재학 기간 대부분은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였으므로 운동권이랄 게 없었으나, 그가 살아온 모습으로 볼 때 전두환 시절이었다고 해도 운동권에 힘을 보태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 전 위원장의 10년 선배인 82학번 원희룡 전 장관은 달랐다. 신군부 독재의 폭압적 정치 현실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접하면서 8년간 야학, 노동운동 등 운동권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진로를 변경하여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경력을 감안하면, 함운경 회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이라면 혹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운동권을 비난한다면, 그건 아니다. 더구나 평범한 생활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자리바꿈한 마당에, 운동권과는 달리 사회 발전보다는 자신의 출세에 몰두했던 젊은 시절을 먼저 부끄러워해야 옳다.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물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너는/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런 태평천하에 어찌서 지가 운동권에 참섭을 헌담 말이어"

세상에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지 않는 '보수파'가 있기 마련이다. 기득권층은 말할 것도 없고 늘 짓눌려 살아온 서민 중에서도 운동권에 눈을 흘기는 사람이 있다. 채만식(1902~1950)의 풍자소설 <태평천하>(1938)의 주인공 윤직원은 기득권층의 좋은 예다. 윤직원은 일제강점기에 서울에서 살면서 부재지주로서 호남의 소작인을, 그리고 고리 사금융업으로 도시 서민을 착취하며 부를 축적한다. 그는 자신의 부를 지켜 주는 일제를 찬양하는 반면,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개혁파를 증오한다.

또 윤직원은 돈 말고도 집안의 족보며, 직함이며, 혼맥이며, 가족 중 권력자 키우기 등의 '사업'을 실천해 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장래 경찰서장을 시키려고 일본에 유학 보낸 손자 종학이 사회주의 활동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전보를 받는다. 이 날벼락 같은 소식에 윤직원은 절규한다.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평평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놓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 말이어, 으응? (출처: <태평천하>, 문학과지성사, 2005: 274면)

윤직원이 1980년대에 살면서 손자 종학이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건 다 박정희, 전두환 덕이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어? 으응? 이런 태평천하에 지 앞길만 잘 닦아 평평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놓 운동권에 참섭을 헌담 말이어, 으응?" 

(이글은 평화뉴스에 2024년 6월3일 자로 게재된 글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민혜진

회원을 만나다



정리. 대담 김선희 대구참여연대 사무국장

참여연대 회원들과 첫 만남이 소식지가 되었네요. 자기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저는 참여연대를 알고 가입하여 활동한 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민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대구본부 DB손해보험 대구중앙 TC에서 TC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계사와 보험 청구 등 여러 가지 보험 관련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약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스케줄 자체가 매우 빡빡했고 기존에 하던 활동들도 있어서 외적인 활동에 눈을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제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입 당시에 집이 침산동 쪽이었는데, 지나가다 보니 참여연대가 눈에 띄더군요.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추구하고 바라던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참여해 보고, 이것저것 배워보고 싶어 좋은 단체라 생각하고 회원가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임신 중입니다. 올 10월이 출산 예정일이라 당분간 적극적인 참여 활동은 어려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전혀 시민단체 활동과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이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더 귀한 회원님이시네요. 정치적인 부분은 특히 가족들과도 민감하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해본 적은 없었어요.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부담 없이 오픈해서 이야기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많이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런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엔 몰랐어요.

남편은 저와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 참여연대 가입할 때도 우려를 보이기도 했고, 참여연대 일정을 함께 하려고 하면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접점을 좁혔습니다. 오늘도 인터뷰한다고 하니 흔쾌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곧 태어날 아이의 가치관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어야 아이도 그렇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남편을 설득하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시댁 어른들과도 이런 이야기는 달아 두지 않고 나누며 접점을 찾는 편입니다. 지금은 호응해주고 계십니다.

가입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은 신입회원이십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연대 활동에 힘을 보태고 계십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인상 깊었던 참여연대 활동이 있다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작년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직접 일본에서 오신 시민활동가 분께서 설명해주셔서 몰랐던 자세한 부분이라든지 일본에서도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이 참여연대와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 편파적인 정보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리고 청년 예산 정책 공부도 좋았습니다. 한참 그 부분에 관심 있어서 깊게 파고들며 공부해보고 싶던 타이밍에 조영태 선생님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취미활동이 있다면요?

저는 정적인 사람이라서 독서, 미술전시 관람, 음악 듣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활동하면서 많이 느끼게 사람은 평생 배운다는 것과 사무처장님을 포함해 연세 있으신 참여연대 회원님들이 젊게 입고 다니시며 계속 배우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누구신지 못 여쭙봤지만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나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지금 확장해 놓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더 깊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아이 낳고 난 이후에도 참여연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어요. 회원가입하고 활동할 일이 있을 때 신청도 했는데 스케줄이 자꾸 겹쳐서 속상했어요. 이제는 그런 것도 조율되지 않을까 싶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아이와 같이 시위 현장에 꼭 참여해보고 싶어요.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일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활동을 직접 하면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아이 낳은 후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신입회원으로서는 대구참여연대에 바라는 게 있을까요?

좀 더 젊은 층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 저만 해도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알고 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강연 같은 자리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제자들에게 물어보니 이 조직의 존재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홍보를 해서 저변을 넓혀 가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회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있었던 오랜 회원들은 나이가 들었고, 20~30대는 10%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청년 회원층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작년 부터 청년 모임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선생님도 출산 후 청년 모임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하면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회원

5-6월 신입회원

유은주 이승수 송은희 김광출

대구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곡에서 참경주를 만나다



도경화 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날씨가 무척 화창한 것이 여행하기 딱 좋은 날이었다. 몇 년 전 수성구 모임에서 역사 기행을 한 이후 오랜만에 참여연대에서 진행되는 역사 기행이라 살짝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최연소 회원인 지안, 지민 가족을 비롯해 참여 인원은 스무 명 남짓이었다. 대구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교수인 양진오 선생님이 길잡이로 나서 가는 곳곳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재미를 더했다.

경주는 신라 유적의 보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유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경주 한편에는 동학의 역사가 깊게 새겨져 있다. 몇 년 전 경주에 사는 지인과 용담정을 갔을 때, 마침 동학 강의가 있어 궁금한 마음에 참여했다. 젊은이도 가끔 있었으나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였다. 영화나 연속극에서나 보던 동학을 21세기인 현재에도 관련 교육을 하고 그 정신을 이어온다는 게 신기했다. 지인과 방문했던 그

날은 많은 사람이 방문해 안내자도 있고 분주했는데 이번엔 인기척도 없이 조용했다. 차 소리가 시끄럽고 오가는 사람이 많은 회색 도시를 떠나 사방이 초록으로 가득한 곳에서 눈이 맑아졌다. 요즘 맨발 걷기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도시는 대부분 시멘트와 보도블럭,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어 일부러 흙을 찾아 가서 걷는다. 여기는 흙과 잔디가 있어 신발을 벗고 맨발 걷기를 했다. 길이 좋지는 않아 조심해서 걸었다. 신기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천도교 최고의 성지인 경주 용담정. 구미산 자락 어느 계곡에 자리한 천도교 창시자인 최제우 선생의 탄생지이다. 이국적인 모양을 한 포덕문을 지나면 수운 최제우 선생 동상이 있다.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에는 책을 쥐 모양새다. 추측건대 그 책은 천도교 경전이 아닐까? 가물어서 그런지 계곡에 물이 졸졸 흐른다. 용담정에 꽃잎이 떨어져 예쁜 무늬를 만들어, 사진 찍느라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용담정에 온 것을 기념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초록 배경에는 모델이 누구든 어떤 자세든 멋진 사진이 된다. 용담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단체 사진을 찍고, 주위를 둘러본 뒤 '수운기념관'으로 발길을 돌린다.

천도교 활동이 왕성했던 곳, 수운과 천도교 관련 다양한 자료가 있다. '사람이 하늘이다'는 천도교의 교리와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모두 상생하여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으로 수운은 세상을 바라봤다.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꿈꿨다.

사람을 세상의 근본으로 보는 인본과 평등, 상생이 천도교의 근본 가르침이다. 수운은 아내를 위해 안심가를, 자녀와 조카를 위해 교훈가를 지었는데 이는 한글 가사체이다. 천도교는 피상적이 아닌, 내 옆의 사람부터 마음을 일깨우고 삶을 바꾸도록 호소한 것이 독특하다. 이는 후에 남녀평등에 앞장서고 소파 방정



환을 내세워 어린이 운동을 이끈 것과 연관되었다. 수운은 만인평등 사상을 몸소 실천했다. 자신의 여중 들 중 한 사람은 머느리로, 한 사람은 딸로 삼았다. 그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다. 다른 양반에게 못매를 맞을 행동이었다. 천도교는 잡지를 창간하여 교리를 널리 펼쳤는데, 일간지 만세보와 천도교월보, 월간지 개벽, 부인, 어린이, 신인간 등을 펴냈다.

점심은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을 예약하지 못해 주변 쌀밥집으로 갔다. 그동안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과일·야채식으로 바꾸고 나서는 식당에 잘 가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니 너무 맛있어 허겁지겁 먹었다. 다른 식탁에는 강된장을 남긴 곳도 있었는데 우리 식탁에는 다 먹고도 추가 주문한 것까지 다 비웠다. 우리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먹성이 더 좋은지 모두들 맛나게 배불리 먹었다. 음료 대신 승냥을 내놓은 것도 좋았다.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마치고 우리는 현곡면 나원리 676에 있는 오층석탑으로 향했다. 석탑은 통일신라시대 초기인 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의 특징은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하얀 색깔을 유지하는 점이다. 그래서 '백탑'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경주 부근에서는 보기 드문 오층석탑이란 것도 특징이다. 경주에는 8과, 여덟 가지의 괴이한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나원리 오층석탑이다.



같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나 남사리 삼층석탑과 달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끼도 끼지 않고 여전히 백색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절터 이름도, 흔적도 남지 않고 오층의 백탑만 나지막이 세월을 지키고 있었다. 요란한 연등만이 절을 지키고 있었다. 나원리 오층석탑을 뒤로 하고 진덕여왕릉으로 향한다.

진덕여왕릉은 현곡면 오류리 산48번지에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654년에 왕이 죽자 '진덕'이라고 하고 사랑부에 장사지냈다고 전한다. 사랑부는 현재 경주 시내의 서남쪽 일대로 짐작되는데, 이 무덤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무덤 형식도 제33대 성덕왕 이후에 발달한 형식이고, 12지신상의 조각 수법도 신라 왕릉의 12지신상 중 가장 늦은 것이다. 이런 점을 들어 진덕여왕의 능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는 해설이 기억에 남는다. 진덕여왕은 신라의 마지막 성골 출신 왕이다.



7년간 왕으로 재위하는 동안 국력을 기르고 당나라와 적극적 외교를 통해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하여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2011년 7월에 신라진덕여왕릉에서 경주진덕여왕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오늘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인 현곡면 남사리 234-2에 있는 삼층석탑으로 향했다. 모내기철이라 눈에 물 대는 고즈넉한 농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랐다. 보물 제907호이며, 통일신라시대 9세기에 세워진 탑으로 짐작한다. 이름 없는 옛 절터에 탑만 남았다.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이다. 지안과 지민은 부러져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칼싸움도 하고 깔깔거리며 논다. 빙 둘러서 설명을 듣고 탑을 본인 휴대전화에 간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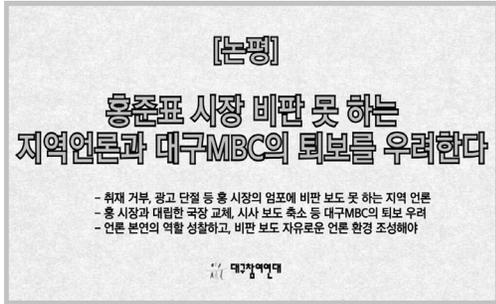
양진오 선생님이 역사 기행을 좋아하고 경험도 많아서 여행지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 좋았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해설을 들으니 유적도 달리 보여서 좋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확 와닿는다. 대구에도 다양한 유적지가 있을 텐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다음에는 대구 유적지도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봐서 좋고, 참여연대 회원이 아닌 대구 시민이 함께해서 좋다. 이런 대중적인 행사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단체가 될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이다. 좋은 해설 해 주신 양진오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린다. 



대구참여연대 활동소식 (5~6월 활동소식)

- 6. 1. [연대활동] 노무현 추모제 참석
- 6. 4. [성명] 홍준표 시장 쿼어 축제 방해 몽니 거두고, 검찰은 홍시장 소환 조사하라
- 6. 5. [연대기자회견] 금호강 난개발 규탄 기자회견
- 6. 5. [성명] 달서구의회 음주, 쇼핑 해외연수 규탄한다! 연수비 환수하고, 윤리특위 열어 징계하라
- 6. 5. [동구주민회] 동구 FM공동체 라디오 개국식
- 6. 7. [연대단체회의] 박정희우상화반대시민위원회 집행위 회의
- 6.10. [연대활동] 6.10 민주항쟁 37주년 기념식 참석
- 6.12. [성명]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비공개 등 밀실 추진 비판
- 6.13. [성명]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등의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 6.17. [성명] 의사들은 집단 휴진 철회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하라
- 6.18. [연대기자회견] 시민생명위협하는 명분없는 의사 집단 휴진 철회 기자회견
- 6.19. [성명] 박정희 공항 논의 규탄-박정희 국제공항, '글로벌독재마케팅' 인가
- 6.20. [논평]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은 후반기 이끌 자격 없다
- 6.24. [보도자료] 홍준표 시장 봐주기 수사 관련 자료 공수처에 추가 제출
- 6.27. [연대단체회의] 참여자치연대 집행위회의(서울)

- 5. 2. [집회] 박정희 동상 반대 대구시의회 시민행동
- 5. 7. [공동성명] 컨벤션전담기관 일원화와 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한 입장
- 5. 7. [연대단체회의] 박정희우상화반대 시민대책위 집행위 회의
- 5. 8. [공동성명]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여덟 번째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5. 9. [성명] 시민 죽어나는데, 권력 놀음에 빠진 홍준표 시장 규탄
- 5.10. [연대단체회의] 박정희우상화반대 시민대책위 대표자 회의
- 5.13. [연대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기자회견
- 5.14. [연대활동] 5.18민중항쟁 44주년 기념식 참석
- 5.14. [성명] 홍준표 시장 사건 수사 결과 유감, 남은 사건 신속히 수사해야
- 5.16. [회의] 5월 운영위원회
- 5.18. [집회] 전세사기 사망 추모제
- 5.20. [공동기자회견]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취재방해와 폭행사태 사과하라
- 5.21. [논평] 홍준표 시장 비판 못하는 지역언론과 대구 MBC의 퇴보를 우려한다
- 5.21. [연대활동]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후원회 참석
- 5.23. [강연회]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 5.22. [공동기자회견] 홍준표 대구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5.25. [회원활동] 해설이 있는 역사 답사 '경주'
- 5.28. [보도자료] 홍준표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공수처에 수사요청
- 5.29. [집회]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 및 홍준표시장규탄 시민대회
- 5.29. [연대단체회의] 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회 회의
- 5.31. [연대활동] 전태일의 친구들 후원회 참석



5.21. [논평] 홍준표 시장 비판 못하는 지역언론과 대구 MBC의 퇴보를 우려한다



5.25. [회원활동] 해설이 있는 역사 답사 '경주'



5.29. [집회] 박정희우상화반대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식 및 홍준표 시장규탄 시민대회



5.28. [보도자료] 홍준표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공수처에 수사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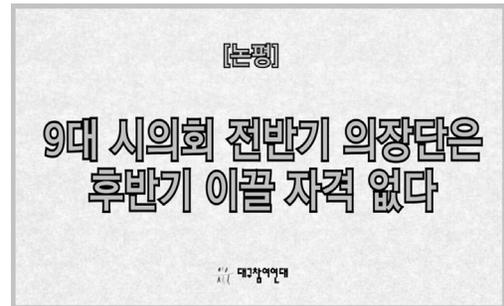
6. 5. [연대기자회견] 금호강 난개발 규탄 기자회견



6. 5. [동구주민회] 동구 FM공동체 라디오 개국식



6.18. [연대기자회견] 시민생명위협하는 명분없는 의사 집단 휴진 철회 기자회견



6.20. [논평]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은 후반기 이끌 자격 없다

2024년 5,6월 본부 재경운용결과

수입					지출				
항목	목	2024년 5월	2024년 6월	6월기준비율	항목	목	2024년 5월	2024년 6월	6월기준비율
회비수입	일반자동이체회비	630,000	510,000	5.7%	인건비	급여	6,943,890	6,943,900	66.2%
	CMS회비	7,100,000	7,270,000	81.2%		사회보험료	936,740	803,690	7.7%
	연회비			0.0%		상여금	-	-	0.0%
	평생회비			0.0%		퇴직급여	-	-	0.0%
	소계	7,730,000	7,780,000	86.9%		소계	7,880,630	7,747,590	73.9%
후원금수입	일반후원금	650,000	350,000	3.9%	일반관리비	장기차입금상환	-	-	0.0%
	사업후원금	-	-	0.0%		지급이자	-	-	0.0%
	청년활동기금후원금	-	-	0.0%		사무실임차료	800,000	800,000	7.6%
	헤피빈모금	-	-	0.0%		정보통신비	181,391	181,458	1.7%
	후원행사	-	-	0.0%		사무용품비	60,000	10,000	0.1%
	소계	650,000	350,000	3.9%		소모품비	-	7,000	0.1%
기타수입	광고수입	-	-	0.0%		냉난방비	-	-	0.0%
	이자수입		297	0.0%		도서구입비	20,000	25,000	0.2%
	기타수입	224,000	220,000	2.5%		지급수수료	77,581	77,146	0.7%
		소계	224,000	220,297	2.5%		수도광열비	61,240	-
사업수입	일반사업수입	865,000	600,000	6.7%		기타경비, 세금	18,000	-	0.0%
	명절수익사업수익	-	-	0.0%		소계	1,218,212	1,100,604	10.5%
	기타사업수입	-	-	0.0%	홍보비	소식지발송비	239,520	-	0.0%
	허계캠프수입	-	-	0.0%		소식지제작비	800,000	-	0.0%
	소계	865,000	600,000	6.7%		기타홍보비	-	-	0.0%
						소계	1,039,520	-	0.0%
차입금	단기차입금	-	-	0.0%	사업집행비	연대사업비	320,000	70,000	0.7%
	장기차입금	-	-	0.0%		일반사업추진비	1,140,000	85,000	0.8%
	소계	-	-	0.0%		회원조직사업추진비	270,000	256,900	2.4%
						사업출장비	-	162,600	
						후원행사비용	-	-	0.0%
						허계캠프비용	-	-	0.0%
						명절수익사업비용	-	-	0.0%
						청년활동기금사업	-	25,500	0.2%
						소계	1,730,000	600,000	5.7%
					지원경비	동구주민회교부	250,000	250,000	2.4%
						소계	250,000	250,000	2.4%
					미지급	미지급금	788,320	788,320	7.5%
						순지출총계	12,906,682	10,486,514	
	수입합계	9,469,000	8,950,297			월별 수입지출차액분	- 3,437,682	- 1,536,217	
	전월이월금	10,922,973	7,485,291			동장 잔액	7,485,291	5,949,074	(기금포함)
	총 계	20,391,973	16,435,588	100.0%		총 계	20,391,973	16,435,588	100.0%
5월 재정 내역					6월 재정 내역				
수입	자동이체 회비	자동이체 46건 / 일반후원금3건			수입	자동이체 회비	자동이체 37건 / 일반후원금2건		
	CMS 회비	473건				CMS 회비	470건		
	후원행사수입					후원행사수입			
	청년활동기금수입					광고수입			
	명절수익사업					명절수익사업			
	기타수입	서울참여연대 임대료				일반사업수입	후원장터 즉자2점판매		
일반사업수입	후원장터 현장 입금분			기타수입	서울참여연대 임대료				
지출	사회보험료	4월분 사업자부담분			지출	사회보험료	5월분 사업자부담분		
	장기차입금상환					장기차입금상환			
	정보통신비	금융결제원, 인터넷, 전화				정보통신비	금융결제원, 인터넷, 전화		
	연대사업비	참여자치연대 월회비, 전대 앞의 친구들 자원봉사개발원				연대사업비	참여자치연대 월회비		
	일반사업추진비	후원장터 물품구매대금, 박정희 우상회사업분담금				일반사업추진비	후원장터 차량이용료		
	회원조직사업비	오즈메일리이용료				회원조직사업비	오즈메일리이용료, 휘원방문식대		
청년활동사업	영남대 정외과 학생 교육 다과비/청년모임			명절수익사업비용					
기타	*5월 신규회원2명, 해지회원 3명			기타	*6월 신규회원2명, 해지회원 3명 /예수금788,320				

※ 회원 · 시민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강경달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박근식 강선구 강수영 강은수 강재기 강준구 강진효 강현구 경라운 고영문 고춘자 고태용 공정옥
 광연하 광이화 광현수 구수용 구인호 권구형 권기혁 권대용 권덕기 권미숙 권상구 권석우 권영래 권영태 권옥자 권용현 권추경 권택홍
 권혁장/추정화 권현준 권후선 금송민 김갑진 김건예 김진우 김건훈/김향미 김경근 김광석/이혜영 김규엽 김기용 김남수 김대균 김동명
 김동식/박원영 김동용 김동창 김동현 김명환 김무탁 김미경 김미경 김미수 김미정 김미정 김민서 김민재 김배 김병옥 김병화 김병혁
 김병호 김보성 김보영 김보임 김봉심 김삼/한효정 김상숙 김상호 김석수 김선우 김선주 김선희 김성구 김성수 김성수 김성택 김수동
 김수옥 김수정 김수현 김순규 김순옥 김승주 김신애 김신일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영록 김영문 김영숙 김영아 김영일 김영진 김영철
 김영화 김영화 김용원 김윤상 김은경 김인하 김재승 김재훈 김정미 김정민 김정민 김정화 김종록 김종봉 김주영 김주영 김주옥 김준호
 김지연 김지일/박선영 김진환 김채원 김철원 김태균 김태영 김태일 김태훈 김해원 김해환/곽이화 김현희 김형섭 김형진 김효정 김효주
 김희섭 김희운 김희진/변정호 나순단 남성욱 남영주 남채현 남호진 노경미 노연수(연푸드) 노태맹 노형석 도경화 도교동 도근환 도묘연
 도영주 도윤백 류소정 류영준 류영철 류지호 류태하 문영곤 문용우 문종상 문창식 민정식 민혜진 박건상 박건옥 박경로 박경순 박경순
 박경찬 박금동 박대희 박덕환 박명리 박명호 박신우 박성미 박성민 박성찬 박세정 박순일/이미숙 박시재 박신희 박영복 박옥순 박완슬
 박은경(한국에드) 박은정 박은주 박인규 박인철 박재락 박재범/권미숙 박재일 박정권 박정민 박정호 박종률 박지용 박찬미 박찬영 박창호
 박정진 박현탁 박호석 배갑기 배금정 배대환 배은경 배준석 백경록 백권기 백미숙 백차흠 변영숙 변화진 서대현 서덕교 서보성 서상득
 서상민 서상철 서정옥 서준하 서준호 서창환 석민철 석성진 설동진 성상희 성언제 소영진 소유철 손광락 손명순 손상호 손성봉 손태운
 손형민 송명수 송미진 송상욱 송성범 송윤식 송은희 송혜이 신기복 신기완 신도환 신동민 신동완/정희선 신동주 신동화 신덕렬 신미숙
 신미정 신성욱 신수정 신숙경 신수희 신영숙 신유지 신윤정 신정석 신중석 신창섭 심순경 심순철 안경완 안경옥/박지선 안병화 안상진
 안승택 안영배 안원기 안정임 안현수 양선진/임호성 양승문 양영일 양진우 양희 업창옥 오문섭 오병현 오신태 오의식 오현주
 우성문 우용택 우장한 유경진 유용준 유은주 육심원 윤명화 윤문주 윤보옥 윤상호 윤성아 윤소원 윤용희 윤재석 윤정호 윤종화 윤태자
 윤호석 이근희 이광모 이교희 이규호 이근덕 이금태 이기락 이기수 이남수 이동민 이동인 이동진 이동훈 이두옥 이만호 이명균 이명원
 이명은 이미지 이병동 이상돈 이상목 이상수 이상술 이상원 이상원 이상훈 이석목 이선영 이선영 이성혜 이성희 이소영 이순재 이승도
 이승렬 이승수 이승수 이승연 이승익 이연주 이영운 이영희 이원배 이원준 이윤희 이은미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의호 이장근 이장환
 이재남 이재문 이재성 이재욱 이재일 이재희 이정동 이정만 이정수 이정애 이정화 이종길 이종득 이종우 이종춘 이종필 이주영 이준우
 이준홍 이진희 이창수 이창순 이창화 이천희 이철환 이태우 이풍락 이현미 이현민 이현숙 이현옥 이형석 이흥기 이화선/정호태 이화정
 /최훈태 이효진 임성무 임순광 임은희 임종설 임향 임현수 임현태 장밖은 장성수 장영훈 장우영 장은우 장정규 장준현 장현주 장화환
 전우태 전창훈 전홍철 정강미 정강미 정경열 정경희 정규진 정길운 정대화 정상기 정선미 정수현 정승필 정예은 정용태 정용훈 정우근
 정우달 정이섭 정재봉 정재영 정재형 정재훈 정지욱 정지혜 정창수 정현숙 정혜숙 정호원 조광진 조덕호 조병집 조영철 조영태 조용식
 조재민 조현주 조희래 조희재 진성섭 진수미 차광호 차우미 차정원 채장수 채장식 채형복 채희균 천덕우 천용길 최개천 최경미 최권호
 최기현 최나래 최문석 최미나 최병덕 최병우 최병학 최병해 최상주 최선에 최신일 최연석 최우식 최유리 최유정 최은경 최인혁 최재혁
 최정옥 최종태 최철영 최하예 최현겸 최현진 최혜진 추정화 추호식 태찬인 하만호 하성협 하영선 하유신 한경국 한상훈 한승균 한승훈
 한은영 한현희 허노목 허은경 허중 현호성 홍상의 홍상의 홍순표 홍영표 황상천 황순규 황순오 황양운

연회비 신순임 최명규

평생회원

원유술 김민남 법광 권홍락 김 미 김성희 김은주 김응곤 김영화 성상희 신숙경 이경옥 이종만 진미화 윤지현 이찬진

※위 명단은 2024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회비가 인출된 명단입니다. 이름 누락 등 기타 오류 발생 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053) 427-9780 담당 : 김선희

함께 꾸는 꿈

(격월간 발행) 통권 149호 **2024** 5, 6월호

등록번호 대구라01132 등록일 2000년 8월 4일 제호 함께꾸는꿈
간별 격월간 디자인 참디자인 발행일 2024년 6월 28일, 통권 149호



대구참여연대

발행처 || 대구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2층
전화 : 053) 427-9780~1
상담 : 053) 427-9788
팩스 : 053) 427-9723
홈페이지 : <http://www.civilpower.org>
전자우편 : dgpeople@gmail.com
후원계좌 :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공 동 대 표 || 임창욱 정혜숙 박경로
운 영 위 원 장 || 류영준
사 무 처 장 || 강금수
상 근 활 동 가 || 조영태 김선희

■ 풀뿌리주민자치

- 동구주민회

대표 : 박호석
운영위원장 : 양희
Add. 대구시 동구 입석로 96, 연우빌딩 2층
Cafe : <http://cafe.daum.net/dongjumin>

■ 참여와소통위원회

위원장 : 김형진
위원 : 도경화 정용태 강금수 조영태 김선희
편집담당 : 김형진

전시공간구성전문기업

P.SPACE EXHIBITION



곽현수 회원
010-3516-0160

(주)피스페이스 www.pspace.kr
본사-공장 대구시 동구 반야월북로12길 14 3층
Tel 053.755.2271 Fax 053.755.2273
E-mail kwag1379@hanmail.net

웃음도 활짝 건강도 활짝

활짝요양원

원장 박청진 회원



대구시 동구 신서동 534-2번지 진성빌딩 4층
T. 053-427-8318 F. 053-964-8328
M. 010-3189-8328
e-mail. cjpark2016@naver.com

Maru

(주)미루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 국내·외 패키지 여행
국내·외 단체여행 / 국내·외 신혼여행
국내·외 답사여행 / 여권, 비자 수속대행
대구참여연대 회원은 할인해 드립니다.

김기용 회원

☎ 053) 257-6599 / 010-4503-1573
E-mail : ddohansaram@hanmail.net

수경한의원

서대현 회원
010-5719-779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35-1
범어역(우방) 유철상가 3층 308호
TEL : 053) 754-7791
053) 754-7790
http://수경한의원.kr
http://omsk.co.kr

PIT CREW
자동차 유지정비 PORTAL

(주)성무모터스 pitcrew.kr



피트크루 · PIT CREW는

자동차 유지정비에 관한 어떤 분야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PORTAL Service를 제공합니다.

국내차량에 대해서는
정직, 친절, 성실한 기술력을 약속 드립니다.



박선형 회원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489 월성동 1801-1
T. 053) 565-1696
F. 053) 565-1697

대구참여연대 회원가게

가게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사무실(053-427-9780)으로 연락주세요.

올해까지 회원가게 응원을 위해 무료로 광고중입니다.^^



신숙경 회원

맹초비빔된장/맹초강된장

밥에 넣고 쓱쓱쓱!
반찬걱정 NO! 혼밥·여행에 딱!
재래속성된장과 청양고추로 만들어
맛있게 매운
4無첨가 웰빙 비빔된장 양념!



NAVER 맹초비빔된장 검색

한칼식품/대구 북구 칠성로35/ ☎053-354-1188



iM

모든 순간이 행복할
당신의 곁에 언제나,

iM뱅크

DGB대구은행 

